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5호 [루게 제24413호] 주제102(2013)년 12월 31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돌아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돌아보시었다.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강석주동지, 김양건동지, 한광상동지, 진일춘동지, 리재일동지, 박태성동지, 황병서동지, 김병호동지, 마원춘동지, 박명철동지가 동행하였다.

마식령의 풍치수려한 천연산악지대에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이 일떠섬으로써 체육과 관광, 휴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종합적인 겨울철체육기지가 마련되게 되었다.

마식령스키장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헌원을 받들어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려고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여름의 무더위와 12월의 맹짙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산세험한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고찾으시어 인민을 위한 대중체육관광기지로 훌륭하게 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었다.

마식령스키장이 완공됨으로써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은 마음껏 스키와 스케트, 썰매를 타며 체력을 단련하고 장쾌한 해돋이와 자연경치를 부감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게 되었고 사회주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 소리가 마식령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봉사시설들이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스키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게 꾸려졌다고 하시면서 마식령지구의 특색이 잘 살아난다고, 출장을데 없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삭도를 타시고 정점까지 오르시며 안전성과 편리성을 료해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삭도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설치되었고 주로들의 상태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마음껏 스키운동을 하며 희열에 넘쳐 웃고 떠들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그려보시며 기쁨을 금지 못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눈다짐차, 눈포를 비롯한 설비들의 성능에 대하여서도 료해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식령스키장의 모든 설비들이 현대적이라고 하시면서 이만하면 스키장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뿐만 아니라 스키장을 리용하는 사람들도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식령스키장의 봉사자들이 스키장의 시설과 건물들을 적극 애호관리하고 봉사활동을 짜고들어 당의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욱 뜨겁게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산발들을 뒤흔들며 높이 올려퍼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마식령

호텔과 스키봉사 및 숙소건물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식당,

상점, 출판물관매소, 간이매대 등에 들리시어 봉사활동준비정형과 봉사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

2 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돌아보시었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마식령스키장은 문명과 건축의 참단을 돌파할 데 대한 시대적요구에 따라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모든것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졌다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가 정말 큰일을 했다고, 당의 결심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기어이 관철하고야마는 군인들에 의하여 우리 인민들과 세계앞에 선포한대로 마식령스키장 건설을 올해중에 끝낼수 있게 되었다고,

뜻깊은 올해를 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나게 결속할수 있게 되었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식령스키

장이 당이 바라는 기준에서 완공된것만큼 하루빨리 준공식을 진행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운동을 하게 하라고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지도속에서 훌륭히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천만 군민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며 사회주의 문명국의 상징으로, 선군조선의 문명의 산악으로 높이 솟아 세세년년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정론 위대하라, 김정은시대여 2013년 승리의 언덕에서 더욱 눈부실 내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며

내 조국의 한해가 저물어가고있다. 송년의 언덕에 서니 흘러온 날과 달이 너무도 가슴벅차고 걸어온 자욱자욱이 더없이 소중하여 우리의 흥분은 잠들줄 모른다. 격동적인 사변들은 얼마나 많았고 추억 또한 얼마나 뜨거웠었인가. 2013년이야!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리

우리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노래와 함께 이해를 바래왔다. ...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리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 추억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주제 102 (2013)년 1월 1일 0시, 2012년의 마지막 한초가 이해의 첫 시각으로 이어지던 역사적순간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황홀한 축포가 평양의 하늘을 가로타쳐왔다.

참으로 범상치 않은 해였다. 수도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경축의 불보라를 만끽하게 바라보시면서 세상이 보란듯이 축하잔을 나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심에 단친 신소음, 온 나라 강산에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선율과 함께 새해의 첫아침이 밝아왔다. 사랑하는 천만군민과 온 나라 가정에 따뜻한 축복을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근하신 영상을 우리들며 우리는 2013년의 첫 자욱을 때었다. 첫시작부터 회한하였고 첫걸음부터 대단하였다. 이 땅위에 지나간 세월이 흘렀건만 우리 인민이 이처럼 환희롭고 장엄하게, 뜻깊고 자신만만하게 첫 진군길에 나선적이 있었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에게 이 땅위에 사회주의 이상성국,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입니다.》

얼두말이 흘렀다. 새해에 우리앞에는 더 밝고 팔황한 전망이 펼쳐져있으며 우리 인민이 나아가는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신은 현실로 증명되었다. 조국은 무섭게 솟구쳐올랐다. 우리의 지부심은 하늘에 닿았다. 조국은 어떤 나라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조국이 얼마나 존엄스러우며 우리의 국력은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력사의 이 물음에 2013년은 대답하였다. 세계를 놀래운 1월 1일의 총격에 이어 이 땅에서는 조선의 본때를 과시하는 사변들이 연이어 터졌다. 세계가 불안과 우려의 눈빛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2월의 혁명성이 터져올랐고 전시상태를 방불케 하는 맹렬한 공기가 흐르던 3월의 하늘가에 승진의 포성인 병진로선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는 길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있을수 없다는 우리 당의 철의 의지가 승리하고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을 이고 살려는 인민의 념원이 성취된 기쁨을 무슨 말로 다 터질수 있겠는가.

우리 세태뿐 아니라 후손만대까지 두고두고 찬양할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고 고난속에서 허리띠를 조이며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강성의 꿈을 실현하였으며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만년 존엄의 초석을 억세게 다진 그 기적은 어찌 위대한 승리라고 말할지 않을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신년사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가 볼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라고, 자주,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끝까지 끝마르 나아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의 참뜻을 우리는 온 세상을 뒤흔드는 격동적인 사변들을 체휼하면서 알았다.

김일성-김정일원범과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운명의 보검으로 틀어쥔 천만군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절세위인들께서 개척하신 백두의 행군길을 대를 이어 끝까지 이어갈 철석의 의지를 만방에 과시하였다.

성스러운 승리의 축포성이 7월의 경축광장을 진감하였다.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러며 열병대가 지축을 울리고 천만의 발구름소리가 하늘땅에 메아리처럼 전승철의 환호성은 조선의 승리의 전통이 어떻게 빛나게

우리 정령 붓을 들지 않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승리에서 승리로 폭풍처럼 그 영웅적인 대진군, 용감하게, 눈부시게 조선을 펼치며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세계우에 높이도 떠올린 영광스러운 2013년을 우리는 력사에 긍지높이 새긴다.

무궁토록 나뭇기리

계승되어나가는가를 인류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7.27의 승리를 백전백승으로 펼쳐가는 우리 공화국의 위용, 단결되고 존엄 높은 불멸의 강국의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한 9월의 대축전도 세계로 하여금 조선의 오늘을 알게 한 또 하나의 사변이었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세계를 향해 단숨에 솟구쳐오를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상을 과시한 6월의 폭풍은 조국땅에 새로운 비약을 안아왔다. 사회주의문명국의 모습이 아니고 그 속도와 수준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건설의 불바람속에 《세계에 없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불과 몇달사이에》라는 말들이 너무나 데사롭게 들려오는 한해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류경구강병원, 국가과학원 중앙비석연구소, 미림습마구락부...

보통때같으면 몇년이 걸려야 할 방대한 공사, 어느 한두 대상도 아닌 그렇듯 많은 기념비적창조물건설을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해놓은것은 력사의 기적이 아닐수 없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각이면 세계어른들은 10대사변이요, 투대사변이요 하면서 나름대로 력사에 남긴다. 아마도 조선에 와서 그런 식으로 사변을 폼오라면 열이 아니라 백으로도 다 셀수 없을것이며 그 하나하나가 다 투대사변이라고 칭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가보면 청천강을 길들이는 애국자들의 합성이 건설의 교황국으로 울려 퍼지고 고산과수농장에 가보면 청령아래 사과바다를 펼쳐가는 돌격대원들의 창조의 희열이 단쳐나며 세포드판에 서던 세계적인 출신 자들을 최단기간에 일떠세워가는 개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이 가슴을 격동시켰다. 천지개벽, 천도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어느 도, 어느 군에서나 건설의 불바람이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사회주의 새 생활을 꽃피워왔다. 자강도의 국경도시에서 만포연하발전소 준공소식이 들려올 때 황해북도에서는 신평강강명승지가 선군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로 일떠섰다. 서해의 외진 섬들이 로동당만세소리 높이 울려드는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될 때 청진시의 포항지구도 눈부시게 달라졌고 창성평도 지난해와 또 다르게 변모되었다.

이전같으면 온 나라를 들쭉이게 할 커다란 성과도 올레에는 평범하게 여겨질 정도로 변은 많지도 않다. 미처 다 꼽을수 없다. 천리마의 교향 강선에서 무연탄가스화로의 높은 고온공기연소식 증형안기열로공공식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이어 집적광업연합기업소 제3선광장 마광체류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된 소식이 들려왔고 홍남비료연합기업소에 메타물생산공장이 일떠섰다.

자그마한 공장에서도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했다는 자랑이 울려 퍼지고 산골골에서도 온 나라에 통장훈을 부르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우리 식의 공업용컴퓨터가 새로 개발되고 첨단나노측정설비를 연구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첨단기술제품들의 개발 및 생산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한 과학부문의 성과들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것인가.

전국공업대회와 전국체신일군대회,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의 연단을 통하여 알뜰한 성과들도 호풍하며 온 나라의 곳곳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 태어난 하나하나의 발명과 창의안 또한 귀중하다. 기적과 혁신으로 불덩이마냥 달아오른 이 땅에서는 올해에 새로운 바람도 불었다.

잔디심기바람, 버섯생산바람, 남새논실건 설바람... 우리는 내 조국의 눈부신 아침을 이처럼 즐겁게 맞이했고 창조의 낮과 밤을 이렇듯 보람차게 보냈다. 벌이 나도 단단히 난 해였다. 세계의 창공에 이해처럼 람홍색공화국

기발을 줄기차게 휘날린 때는 일찌기 없었다. 올해는 건설의 최전성기일뿐 아니라 체육의 해라고 할만큼 국제체육무대에서도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70여차의 국제경기들에 출전하여 160여개의 금메달 정취, 지난 시기에 비해 몇배로 장성한 금메달수상자대렬과 함께 3중아시아마라톤선수권보유자, 고전형레슬링세계패권자,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력기강자, 나이던 세계유술강자, 탁구강자들이 련이어 태어났고 너자축구선수들이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펼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일터마다, 공원마다에서 그 어느때보다 활기찬 체육바람이 불고 도와 도가 승벽을 겨루고 자그마한 단위로부터 구역급, 시급, 중앙급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국이 체육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의 생활속에 더욱더 친근하게 자리잡았다. 체육강국건설에 기여할 정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이 선발되어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트라인민체육공원과 평양국제 축구학교가 일떠섰다. 양강도축구경기장과 청춘거리 체육촌의 모습도 새로와지고 있다.

위대하다고밖에 달리는 말할수 없는 2013년이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역설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이라는 《조국찬가》의 선율이 울려 퍼지지 않을수 없으며 인민의 희망 강국의 희망 꽃피는 나의 조국이라는 시대의 찬가가 태어나지 않을수 없다. 인류사에 한 나라, 한 민족의 면모를 순식간에 개변시키는 거대한 변혁들이 언제 비롯될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일어날지 있었던가. 올해는 우리 조국에 있어서 운명적인

그이와 함께 모든 영광 맞이하리라

우리 다시 이해의 360여일을 더듬어 본다. 송년의 언덕에 선 우리의 가슴이 이처럼 부풀어오르고 승리에 대한 추억이 이렇듯 뜨거웠을는 무엇때문인가. 이 열두말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귀중한것은 무엇이며 2013년은 과연 어떤 이름으로 력사에 새겨질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위대한 그 부름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가 걸어온 자욱자욱마다에 성스러운 그 부름이 새겨져있고 가야 할 천만리에 대한 확신도 바로 그 승업한 부름에서 빛날 천다. 그이는 시련의 팽풍속에서 조선혁명이라는 기관자를 힘있게 이끄시며 2013년의 눈길우에 빛나는 승리를 아로새기신 이해의 진정한 주인공이시다. 모든것이 그이의 결심대로 흘러갔다. 그이께서는 이례를 자신의 신념과 의지대로 확고히 틀어잡으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을 희망의 언덕, 번영의 언덕으로 즐기게 이끌어 오시였다.

2013년을 보다 큰 기적과 승리의 해로 전진시킨 위대한 심장의 호소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올해안으로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무조건 건설하여 마식령지구에 사회주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그 간곡한 당부, 단숨에의 정신으로 스키장건설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벌이고나감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 공적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라는 그 열렬한 호소, 우리 당이 군대와 인민을 믿고 못헤는 일이 없다고 하신 그 힘있는 고무가 온 나라를 불덩이마냥 달구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에서 다지신 맹세를 굳히시며 한자, 근위장교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매신 첫걸음을 되새기시며 또 한자...그렇게 심장의 피로 새기시듯 호소문의 구절구절을 써나 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웠다. 해방후 개진광장에서 전체 인민에게 새 조국건설에 펼쳐나설것을 호소하시던 어버이사형님의 그 모습이었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이한 새해의 첫아침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치게 일해나가는 뜻깊은 친필서한을 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 그대로이시였다.

6월의 호소문은 천만군민을 최후승리를 위한 총돌격전에 더 힘차게 부르는 진군 나팔소리였고 바야흐로 이 땅에 펼쳐질 새로운 비약의 시대를 예고하는 장엄한 희생이었다. 그것은 우리 원수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내리신 명령이기에 전애 자신의 심장에 내리신 명령이었다. 호소문을 쓰신 그 걸음으로 그이께서는

해라고 할수 있었다. 1990년대에 《3, 3, 3》봉피설까지 내뿜으며 조선을 질식시켜 숨죽이려던 원수들이 또다시 때가 온듯 기세를 부리며련합하여 달려들었다. 익측도 후방도 없이 단독으로 세계렬강들과 맞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가리결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격전에서 살아남기만 해도 그것은 력사의 기적이었다. 하지만 2013년의 갈피갈피가 보여주듯이 조전은 단순히 존엄을 지켜낸 용감하고 굳센 나라로만이 아니라 번영의 길을 드넓게 닦고 강성국가의 래일을 앞당겨가는 창조와 비약의 나라, 진보와 문명의 기세를 자신만만하게 펼치는 나라로 세계우에 우뚝 올라섰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해인 2012년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조선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어떻게 일떠서는가를 보여준 해, 위대한 김정은시대가 력사의 단계를 올린 해였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두번째 해인 올해는 조선이 어떤 모습으로 세계만방에 빛나며 위대한 목표로 향한 자기의 항로를 어떻게 과감히 개척해나가는가를 뚜렷이 보여준 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꿈과 리상의 높이, 진군속도와 힘을 과시한 자랑찬 해이다. 위대하여라, 김정은시대여, 조국의 국력도 백배로 다져지고 혁명대오의 단결도 천만배로 공고해졌으며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인민의 기상이 우주에 닿은 2013년과 더불어 영원토록 길이 빛나라. 창공높이 나뭇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국기와 함께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우에 더 힘차게 떠받들어올리라.

영광 맞이하리라

버섯공장을 찾으시었고 연이어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였다. 평양국제축구학교, 트라인민체육공원, 창성군,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6월 한달동안에만도 얼마나 많은 공장과 일터, 단위들을 찾으시였던가. 우리 원수님께서 한자욱 매시문 끝 거대한 벌이 뒤따랐고 또 한자욱 옮기시던 나라의 면모가 달라졌으며 다시 한걸음 내짚으시면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그이께서 물놀이장건설을 한번 찾으시면 설계도가 또 한번 달라졌고 그이께서 스키장건설장을 찾으실 때마다 《마식령속도》는 더더욱 가속화되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비상하게 흘러왔고 한달한달이 그렇듯 번개처럼 쏘아왔다. 우리 조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시기 위해 적들의 총구가 3500마에 도사리고있는 오성산의 까칠봉소에도 서슴없이 나서시고 사랑하는 인민의 머리를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을 펼쳐주시려 전선에서 또다시 전선으로 강행군길을 이어오신 우리 원수님, 이른 아침 초소를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오며 여기서 평양은 천리인 데 그 언제 떠나셨을가라는 병사들의 눈물젖은 속삭임이 전초가에 울리고 지금은 여대 계열가 그 어디 찾아가지려는 인민의 그리움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메아리치는 속에 날과 달이 바뀌었다.

정녕 우리 원수님께서 온 한해 혁명의 붉은기를 앞장에서 휘날리시며 안아오신 위대한 기적, 위대한 승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해에 찍어오신 자욱자욱은 보통의 걸음이 아니었다. 세계정치가들이 앞을 다투어 피서지를 찾는 삼복철에도 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나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할것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당장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하면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

그이는 바로 이런분입니다. 이 나라가 강대해진다하여, 우리 인민이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행복할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러 바치고싶으신것이 우리 원수님의 심정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앞에 하루빨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려는 행복 한 인민을 내세우고싶으신 것이 피약없이 내려조이는 한낱에도, 별빛 총총한 깊은 밤에도, 삼라만상이 단결에서 깨어

나지 못한 이른새벽에도 찾고찾으시며 우리 원수님 이 땅의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을 얼마나 품들여 일떠세워주시었던가.

관공을 앞둔 세계적인 창조물들을 돌아보실 때마다 이제 여기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날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신던 원수님의 뜨거운 심증을 우리 눈물없이 돌이킬수 없다. 조국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불같이오며 그이의 구성은 모든것이 세계적수준이었고 그이의 목적은 언제나 최첨단이였으며 그이의 실천은 상상하지 못했던 최한 결실로 이어졌다.

어제는 세계일류급의 문수물놀이장에서 황홀함에 경탄을 터치던 우리 인민에게 오늘은 말고베를 쥐여주어 멋진 승마주루에 내세워주시고 메일은 또 마식령의 최한 스키장에서 겨울의 진짜제미를 한껏 맛보게 해주시려고 끊임없는 로고를 바치시는 우리 원수님입니다.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주고싶어하는 천부모의 심정으로 전에는 현대적인 교육자살림집에 입사할 세대들에 역경 TV를 안겨주라고 하시고 이번에는 서해 해변에 당반직장장을 설치해주고 북도벽면에는 원형기둥을 달아주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그이, 우리 인민에게 최상급의 승마장을 안겨주시려 8월에 찾으시였을 때에는 토사주루에 먼지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신 그이께서 9월에 오시여서는 산도비로를 잘 꾸려주고 아담한 정자들 도 세워주라고 하시었다는 보도의 글줄들을 읽으며 감격에 목매이던 우리 인민이다.

이상을 둘러보면 인민을 위한다고 말하지 않는 정치가가 없다. 그러나 우리 원수님처럼 자신의 온넛을 인민에게 쏟으시고 인민들에게 눈앞의 소박한 소원이 아니라 아득한 리상의 언덕에서나 그려볼수 있는 행복의 꿈을 현실로 꽃피워주시신 그런분이 동서고급에 있었던가.

남다 이 땅에 솟구쳐오르는 세계적인 창조물들에서 향유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 가는 조국의 모습을 가슴벅차게 바라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안겨주시려는 행복이 어떤것이고 그이께서 세우시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알았다.

그이는 이렇게 인민에게 오시였다. 광병이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 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그 정깊은 모습으로, 인민들에게 최상의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그 불타는 열망으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조국번영의 진군길을 앞장서서 헤쳐가시는 그 무한한 헌신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더 뜨겁게 자리잡으시였다.

인민! 정녕 인민메우었다. 바로 인민을 위하여 사생결단의 최전연시찰길에 오르시였고 다름아닌 인민을 위하여 대를기갈은 비가 쏟아지는 건설의 위장길도 걸으시였으며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똑같이 미루시며 하루를 열꽃맞잡이로 온 한해를 불같이 살아오신 우리 원수님입니다. 그리고 매시문 생각할수 없는 이해의 360여일이 안고있는 하많은 사연들가 올레는 김정성평양방직공장에 새겨진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성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의 아침이었다.

공장에 도착하신 첫 순간에 종업원들의 생활문제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게 된 공장일군들은 한순간 굳어진채 서있었다.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생산문제를 론의할 가지가 없소!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도, 견본실에 투입시켜서도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은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 학습문제가 없었다. 자신께서 책임지고 훌륭한 학습을 지어주시겠다고, 방직공장 종업원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는 더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고 결절히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들며 공장일군들은 끝끝내 오열을 터뜨리고야말았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가보아도, 자강도로동계급을 만나보아도, 은하과학자거리의 그 어느 집문을 열어도아도 우리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감사의 정이 넘쳐 흐르거나 우리 어찌 이런 위대한분을 따르지 않을수 있으며 심장을 마쳐 받들지 않을수 있겠나. 인민을 위해 쌓으신 무수한 행복의 람으로,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으로 우리의 심장속에 더 깊이 간직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우리는 이해에 조선을 책임지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하여 똑똑히 알게 되었으며 마치도 수십년의 체험의 목소리라도 같이 진하고도 열렬한 매혹의 분출로 그이의 위대함을 력사에 뚜렷이 새기게 되었다. 2013년이 이 땅에 쌓아올린 재부도 크고 남긴 자욱도 고귀하다.

그러나 그 모든것위에 이해의 신성한 체험, 소중한 진리가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가 오고 행복이 오며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맞이하는 영광이야말로 인간이 누릴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켈리를 신념으로 간직한다면야말로 벌이 나는 이해의 가장 고귀한 총화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후세에 길이 빛날 2013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강성번영의 새 아침을 기어이 맞이할 인민의 맹세가 12월의 강산에 차남친다.

조선은 영원히 달라질수 없는 기적의 나라, 승리의 나라이다. 자기가 가는 길이 가장 정확하고 위대하며 그 길만이 자기 운명과 생활을 개척하기 위한 유일한 진로라하는것을 인식한 인민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물결을 가르치지 않고 나아간다. 인민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으로 한해를 강그리 불태우는 평도자가 있고 평도자의 결심이라면 산악도 진멸도 헤쳐나가는 총천연 인민만 있으면 기적은 반드시 올것을 2013년은 자기의 위대한 승리로써 비문마냥 력력히 새겨놓았다. * * *

눈이 내린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두번째 해를 벌이 나는 해를 빛내인 승리자들에게 뿌려주는 축하의 꽃보라인가 하얀 눈이 송이 송이 내린다. 더없는 긍지와 자부를 안고 2013년의 송년의 언덕에 선 우리의 눈앞에는 2014년만이 아닌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10년, 100년의 휘황한 미래가 어려 있다.

발걸음도 높이 활개치며 걸어온 이해의 자랑스러운 보폭으로 전진 또 전진, 승리 또 승리를 이룩해갈 신심에 단쳐있는 천만심장이 혁명의 위대한 기수를 위하여 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여, 승리의 2013년처럼 우리를 힘있게 이끄시라.

가슴속에 품은 그 위대한 구상을 마음껏 펼치시며, 젊음과 열정이 넘치시는 그 모습으로 온 나라에 찬란한 미래를 뿌려주시며 무궁토록 이 조선을 이끄시라. 가야 할 길은 멀고 시련은 더 많을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그이께서 손들어 가리키는 희망한 미래를 마중가는 길에 사나운 눈보라가 막아서고 험한 진펄이 가로놓인다 해도 웃으며 헤쳐갈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우리의 의지, 력사의 팽풍을 맞받아헤치며 희망한 미래를 기어이 안아올 우리의 결심은 송년의 이 시각 더욱 뻣뻣해진다.

병사여, 인민이여! 신들메를 더 힘껏 조여매자.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 이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는 김정은시대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비약의 큰걸음을 힘차게 내딛을수 있게 우리모두 한몸그대로 애국의 성들이 되자. 오늘의 승리와 메일로 이어지고 새해의 승리가 10년, 20년으로 끝없이 이어질 때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더 눈부시게 빛나게 될것이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싣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신념의 맹세를 안고,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기약하며 송년의 눈이 내린다. 축하의 눈이 내린다. 김 선영, 한 경철, 김 철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무장으로 받들자 김정은장군》**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경축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무장으로 받들자 김정은장군》이 30일 4. 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선군의 기치높이 주체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권 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정병들, 평양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군인생활향상을 위한 당의 뜻을 받들고 줄기찬 애로전투를 벌여 올레에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안아온 조선인민군 수산부산물생산자의 참가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반제민주주의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사회주의조국을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부들, 무관들, 외국순님들이 초대되었다.

시곡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 은성4중창과 혼성합창 《근간한 우리의 최고사령관》, 남성4중창 《헌신하여라 로동당시대》, 남성독창과 방창 《생이란 무엇인가》, 가요곡 독창 《오직 한마음》, 무용 《우리는 일당백》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으며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려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를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인민군대를 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서지자 장내에서는 열광적인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민족민단의 생명선인 백두산총대혈통이 굳건히 고수되고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역사를 빛내

어나갈수 있는 영원한 담보가 마련되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은성2중창과 혼성합창 《당기어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위대한 당의 위업을 총대로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추대, 역적의 지지점이 되려는 인민군장병들의 억센 신념의 지를 형성하였다.

《훈련도 전두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의 혼연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일당백제군, 만능병사들로 준비해가고있는 군인들의 전투적기백과 만방을 병영한 너성2중창과 남성방창 《우리의 명사수준에 돌아온다》, 남성중창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 손풍금과 타프춤 《군항의 저녁》 등이 편이 무대에 펼쳐졌다.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위해 선군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위대한 선군대령 김정은동지님을 더 잘 모셔갈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은 너성독창 《불타는 소련》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공연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최대의 애국유산으로 안겨주시는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 쥐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님을 영도하러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려는 인민군군인들의 굳은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나갔다.

《발걸음》, 《그 품이 제일 좋아》의 선율에 맞추어 춤가락을 이어나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강성조선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려가는 청년전위들의 환희의 분출인양 《조선의 행운》,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은 으뜸일세》를 비롯한 노래소리가 무도회장을 진감하였다.

수령결사옹위전과 조국수호전, 경제강국건설에서 선군전선전위의 영예와 탁월한 평군술, 무비의 단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나갔다.

《발걸음》, 《그 품이 제일 좋아》의 선율에 맞추어 춤가락을 이어나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강성조선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려가는 청년전위들의 환희의 분출인양 《조선의 행운》,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은 으뜸일세》를 비롯한 노래소리가 무도회장을 진감하였다.

수령결사옹위전과 조국수호전, 경제강국건설에서 선군전선전위의 영예와 탁월한 평군술, 무비의 단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나갔다.

《발걸음》, 《그 품이 제일 좋아》의 선율에 맞추어 춤가락을 이어나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강성조선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려가는 청년전위들의 환희의 분출인양 《조선의 행운》,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은 으뜸일세》를 비롯한 노래소리가 무도회장을 진감하였다.

수령결사옹위전과 조국수호전, 경제강국건설에서 선군전선전위의 영예와 탁월한 평군술, 무비의 단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가시는



개성문광장에서

백두산천출위인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정으로 받들어갈 인민의 의지

각지에서 뜻깊게 경축

은 나라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수도 평양의 극장에서 중앙예술단체예술인들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민수대에출단 삼지연악단과 국립교향악단은 동양악극, 모란봉극장에서 내성6중창 《그이 없는 못살아》, 관현악 《혁명무력은 원수님 영도만 받들다》, 《한마음 따르렵니다》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또 한분의 회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과 원수님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천만군민의 의지를 훌륭히 형성하였다.

평양교예극장과 보통교예극장에서는 체력교예 《날으자 더 높이》, 《남녀를초월》, 《4인줄기》, 동물교예 《동물유희》, 희극교예 《체술의 날》 등이 펼쳐져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각지에서 이채로운 공연무대들이 펼쳐져 경축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평양북도, 량강도, 강원도에출단의 출연자들은 일제기 총대와 깊은 인연을 맺고서 위대한 김정은장군님과 선군혁명의 길에 함께 계시며 우리 혁명무력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을 천만민 높이 모시고 강성국가건설에서 승리를 펼쳐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

민들의 철석의 신념을 담아 출연자들은 기타병창과 노래 《우리 앞날 밝다》, 합창 《내가 지켜선 조국》, 《혁명에 등이 튼다》, 《최고사령관님 달려 승리를 떨치리》 등의 종목을 무대에 펼쳤다.

안주시에서 공연무대를 펼쳐놓은 평안남도예술단의 예술인들은 설화와 합창 《장군님까지엔 병사 사나네》, 너성독창 《우리 원수님》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천만군민의 끝없는 경모의 정을 잘 보여주었다.

황해남북도, 자강도, 함경남도에출단의 공연에서는 합창 《발걸음》, 혼무용 《백두의 평양을 따라서》, 혼성5중창과 합창 《조국찬가》, 설화와 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등의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관람자들은 공연을 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의 모든 꿈과 행복이 이루어지고 웃음으로 비약하는 사회주의조국은 더욱 강성번영할것이라는 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개성학생소년궁전 체육관에서는 시너맹들의 경축무도회가 진행되었다.

충추는 노래선율에 맞추어 춤가락을 이어나가는 너맹일꾼들과 너맹인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하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시와 노래모임, 응원모임을 가지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송고한 의사와 념원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투쟁의 열정을 표명하였다.

원산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을 축하하며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29일 원산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원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동지의 통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시라레온악 《춘양 17》 호선장, 선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을 축하하며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무비의 단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강철의 평양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의 군건설사상과 리론을 계승발전시키시어 조선인민군을 백두산혁명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고 말했다.

선원들의 위엄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고 판문점과 최남단의 최대열점지 역인 심방야대를 비롯한 최전연초소

들과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시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송고한 영도공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체103(2014)년 새해에 즈음하여 30일 주조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세계평화와 안정 수호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답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 등의 글자들이 적여져있었다.

로씨야인민은 로조판개발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신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잊지 않고 있으며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앞으로 더욱 번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몽골 올란바타르시 행정장관 사무국 부국장은 김일성동지께서 몽골에서 진행되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고 평화친선연맹 지도자이자 성원은 김일성동지의 훌륭한 올란바타르에 활짝 피어났었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이 얼마나 뿌리깊고 공고한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기네에서는 8일 김일성화은실참관식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소비품생산의 질적발전을 적극 고무추동한 계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소비품생산은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전개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7차 평양제 1백회점 상품 전시회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다.

250여개의 단위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1160여종의 상품들이 전시되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제6차 평양제 1백회점 상품 전시회에 비해 참가단위수도 늘었고 출품된 상품수도 229만 7천여 점이 많았다.

우리는 이번 전시회장을 돌아 보면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와 경험, 지향적인 측면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보았다.

백화점 부지배인 김미영동무의 이야기였다.

어제날의 훌륭한 상품도 오늘 날에 변화가 없다던 벌레 낚은 것이다. 내용 하나에만 지중해 안되고 형식만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된다.

상품의 질, 그것은 생산자들의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라 대중의 공정한 평가에 의해 규정된다.

선진소비품공장의 상품들은 오

래전부터 소문이 났다. 문수식 로공장의 상품들은 이번 전시회에 처음 출품되었지만 선홍색으로 공장의 빛 못지 않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물론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문수식로공장 상품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상품들도 많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수식로공장》이라는 이름을 더욱 추수했다.

1명분, 3명분, 5명분으로 각이하게 포장되어있는 강냉이박수와 강냉이우동, 모양이 큰 바삭파자와 작은 바삭파자 등 생산자들의 새로운 착상과 노력이 깃들여있는 상품들을 보며 중앙공장들의 뒤를 바짝 따르고있는 지방공업공장의 오늘을 보았고 또 미래를 기대했다.

상품, 그것은 곧 생산단위의 열의이다. 상품들 보고 사람들은 그 단위를 평가하며 중요하게는 그 단위 일꾼들의 일본새를 평가하는 것이다.

모방은 창조가 아니다. 매 상품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보다 분석하고 새로운 높이에 걸맞게 디자인하거나 더욱 발전시켜 나갈 때 시대적미감에 맞는 상품이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의 하나는 바로 고개 단위의 상품들이 자기의 고유한 얼굴을 가지고있으며 설계사류

사상이나 반복이 없는것이다. 많은 피복생산단위에서 출품한 아동복들은 모두가 대상의 심리에 맞게 설계, 제작되어있었으며 양복, 솜옷 등도 다양한 형식을 갖추어 보였다.

우리와 만난 선홍색로공장의 한 일꾼은 이번 전시회기간 다른 식로품생산단위의 상품들을 종종, 분석하는 과정에 파자, 빵

등의 모양을 보다 새롭고 특색있게 할수 있는 여러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였다. 그런 말은 다른 단위 일꾼들에게서도 들을수 있었다.

이것은 전시회기간 기술경쟁이 어떠한 폭과 깊에서 진행되었는가를 충분히 느낄수 있게 하는 실례며 다음전시회를 비추어주는 거울이기도 하였다.

깊은 여운을 준 봉사활동

은 교훈적인 이야기도 들을수 있었다.

평양제 1백회점의 한 일꾼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직접 마주서 의견을 교환하니 앞으로 봉사자와 생산자, 소비자와 봉사자들사이의 관계가 더욱 밀접히 할수 있는 그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곳 백화점에서 판매하게 될 상품의 종류와 가지수를 늘이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게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1차로부터 7차에 이르기까지의 평양제 1백회점 상품 전시회과정을 돌이켜보면 그 규모와 내용, 진행방법, 참가단위들의 열의와 열의가 날이갈수록 높아지고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평양제 1백회점 상품 전시회라는 말만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백화점을 찾았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우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새 계몽개발, 기술혁신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는 인민소비품 생산단위들의 열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오늘의 전시회에 비친 캐달도 그러케 되었다.

본사기자 김 중 성

김정일 화전 시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동지의 서거 2돐과 그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2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 항일의 녀성영웅 김장숙동지의 탄생 9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나토드카, 몽골 올란바타르에서 17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에 김일성화전 시회가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에는 절세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의 분출인양 만발한 불멸의 꽃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로씨야 나토드카시행정부와 시의회, 련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토드카시위원회, 몽골 올란바타르시행정부, 평화친선연맹 등 정부기관, 정당, 단체의 인사들과 군

중이 전시회장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불멸의 꽃들의 아름다움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였다.

로씨야 나토드카시 부시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생애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었다. 그의 영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지향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용떨치게 되었다고 격찬하였다.

로씨야연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토드카시위원회 제1비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경의를 표시하는 것은 진보적인류의 도리이며 의무이다. 【조선중앙통신】

2014년 1월 중 지자기 현상

2014년 1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현상(20-22시), 28일(22-24시), 29일(22-24시)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1월(16-18시), 6일(2-4시), 8일(3-5시), 11일(21-23시), 14일(19-21시), 15일(21-23시), 19일(23-24시), 22일(16-18시), 25일(23-24시).

청진지방

2일(1-3시), 6일(2-4시), 7일(3-5시), 13일(22-24시), 14일(23-24시), 21일(2-4시), 29일(23-24시).

《포장뿐 아니라 내용도 계속 달라지고있습니다. 상품의 내용과 형식도 시대적추세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 일치되어가니 사용자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장시 못 잊을 2013년 이여

주 광 일

이밤이 지새도록 뜨겁게 속삭이고싶은 2013년 못 잊을 한해여

너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어떻게 시작되어 이 가슴에 깃들었기에 내 마음은 너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것이나

열두달의 추억들이 밀려오고 밀려오는 이밤 이 땅에 생을 둔 누구나 생각의 바다위에 노를 저어가는 열두달의 마지막밤

가없는 그 바다를 건너보아도 가슴 가득 넘쳐나는 원수님 생각 추억의 물결위에 몸을 실어도 자꾸만 뱃고싶은 원수님 생각

신년사를 하시는 원수님의 친근한 그 음성에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 나라 가정들이 해마중을 하듯 새해의 문을 열었던 조신의 해

그렇게 시작되어 이 강산에 빛과 열을 주고 그렇게 밝아와 인민의 가슴에 그리도 따뜻했던 우리의 열두달

일년 삼백에 손다섯날 가는 세월 오는 세월 위에 그이와 맺은 혈연의 정은 더 뜨거워만지고 더 깊어만졌거늘

우리 원수님과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를 함께 한 이 한해의 추억으로 하여 누군들 가슴벅차지 않으랴

정령 이 한해를 못 잊어서가 대동강도 흐를을 멈추고 불빛이런 물머리를 들며 출렁이고 또 출렁이는 밤

잊을수 없는 이해를 보내시는 우리 원수님 감회도 깊으시리 장군님의 넋일을 안고 헤쳐오신 열두달의 갈피갈피를 다 번져보시며

사랑과 정을 부여주신 인민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내 마음은 축복의 눈송이 되어 내려앉고싶구나

원수님 정깊게 안아보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그 불밝은 창가마다에 내려앉고싶구나

오시여 생일선물도 안겨주시고 새집들이기쁨도 함께 나누신 삼마을 장제도의 향명이네 집 그 정갈한 트락에도

월월 날아 내려앉고싶구나 설맞이공연준비로 달아오른 아이들의 생일불우에 문수물놀이장을 떠들썩 나서서 창춘들의 물결치는 아개우에

그러면 내 들으리라 이밤도 잠 못 이루며 그리움의 창문을 열어놓은 이 나라 사람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으리라 원수님만 믿고 살면 행복이 온다고 진정을 떠놓는 인민의 고백을

진정 이 땅의 열두달은 떠나선 못 사는 원수님의 품 어머니당의 품이 우리모두를 감싸안고 온 인민사랑의 열두달

그 열두달속엔 있었더라 작은 목선에 올라 최대열점지역 병사들을 찾아가신 파도세한 서해의 배길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오르시던 고층살림집의 그 층계길...

은하과학자거리건설장 불별에 달아오른 자갈길 변침 목들사이로 떨어지는 비 물이

그이의 옷자락과 함께 우리의 가슴을 적시던 육육아동병원건설장의 그 진창길

사랑하는 인민에게 세계적인 물놀이장을 안겨주시려 낮이나 밤이나 마음쓰시던 원수님 문수물놀이장건설장에 또다시 오셨던

완공을 며칠 앞둔 그 깊은 밤 수조의 물결치는 맞춤한가 타일색같은 어울리는가

결음결음 세심한 정을 기울이시며 새날이 밝는줄조차 잊으셨던 우리 원수님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며 물놀이장에 시계도 걸어주자고 환하게 웃으시며 하시던 말씀 -우리 인민들이 시간가는줄 모르고 물놀이를 즐길것이야

내 마음이 벌써 흥그려워지누만! 아,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늘의 별도 떠나두고싶어하는

어머님의 꿈을 안시고 온 한해 원수님 걸고걸으신 그 길 위에 로동당시대의 물놀이공원이 꿈처럼 솟아올랐구나

그 자욱자욱우에 《마시령속도》의 불바람이 일어 억만년 잠자던 대화봉의 산발을 흔들어 깨우며 황룡경을 이룬 스키주르가 눈뿌리 아득히 뻗어가고

시대의 대기념비들이 솟아올랐구나

솟아올라 이 땅에 솟아올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복받은 한해가 되었거니 불밝은 공원의 가로등아래

배부른 눈사람도 길손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가까운 벗들에게 환히들기마냥 축하장도 날리고싶은 이 좋은 밤

이 땅의 천만자식들 생각은 하나같으리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소중한 추억을 주신 원수님께 먼저 마음속진정을 아뢰었으면...

온 한해 바쁜 시간을 내시여 탄부들이 울린 편지도 산골마을아이들이 울린 편지도

다 보아주시고 건강하여 일을 잘하라고 훌륭한 학생이 되라고 축복해주신 원수님

이밤 잠 못 이루리 산너머 구름너머 금야군의 작은 로동자마을

한쌍의 부부도 그날을 못 잊어 잠 못 이루리 부모없이 자란 자기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주고

행복하게 잘살기 바랍니다

아, 꿈속에서도 듣고싶고 기쁨 때도 슬픔 때도 힘겨울 때도 듣고싶던 어머니의 목소리였던가

잘난 자식도 못한 자식도 때로 길을 헛디더 상처입은 자식 까지도

다 품어안고 보살펴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정다운 그 목소리 내 나라 강산에 넘쳐흐려 사회주의대가정에 넘쳐흐려

그리도 따뜻했던 해 그리도 웃음꽃이 만발했던 해

전승 60돐과 공화국창건 65돐의 열병광장에 불별의 태양기를 앞세우고 들어

시며 원수님 우리러 더운 눈물 떨구던 승리자의 해

《조국찬가》를 부르며 맘을 바치고 심장을 바친 그 불같은 낮과 밤들이 추억의 만리바다위에 별부리마냥 아롱지는 밤이여

무수히 피어나는 이밤은 대원수님들 걸으신 백두의 행군길

원수님 따라 끝까지 이어갈 신념의 맹세로 더욱 불타는 밤

말하라 2013년이여 백두산이 굽어보는

너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우리 무엇을 심장에 새겼고 무엇을 온몸으로 걸갯했는가를

그것은 오, 그것은 원수님만 계시면 강국의 꿈이 현실로 펼쳐지고

그 품에서 한자욱이라도 떨어지면 우리의 생이 끊긴다는 절의 진리

그 신념의 기둥을 생활속에서 투쟁속에서 더 억척으로 심장에 박아세운

우리의 열두달은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근민이 천층만층 일심의 정들을 더 놓이

쌍은 결사옹위의 열두달 그 일심단결의 붉은 생세 백두산대가정의 생세를 더 굳게 다지며

꽃피는 봄날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새해의 날과 달들은 그 얼마나 가슴벅찰것인가

마시령스키바람 미림의 승마바람이 온 나라에 일어번지고

새집들이경사로 거리와 마을들이 들쭉날쭉 사회주의문명국이 우리를 부른다

가자 우리 가자 《마시령속도》의 불바람을 대진설의 열풍

비약의 열풍으로 터치올리며 건질의 대변영기가 펼쳐질 2014년으로 가자

우리 기어이 우리 손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아

오며 인민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이 땅 어디 가나 가득차흐를

패일을 앞당기며 설레이고 또 설레이어라 어머니 우리 당의 품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추억도 아름다운 밤이여

태양민족만대에 이어질 백두의 피줄기를 억척으로 다 지며

수령님의 넘원 장군님의 넘원 이 땅우에 이루어 온 내 나라의 열두달이여

너는 지평선너머 사라져도 원수님과 심장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그 추억은 우리 가슴에 후손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니

이 세상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우리 원수님을 길이 받들며

무궁한 태양아래 우리는 너를 안고 살리라 아, 못 잊을 2013년이여!

수필

마지막 달력장을 번지며

12월 31일, 한해가 저무는 마지막날이다. 누구나 밝아오는 새해의 아침을 그리보며 이해의 마지막달력장을 번지는 날이다. 하긴만 이를 못할 걱정이 이 가슴에 사무쳐와 달력의 마지막장을 싣듯 번질수 없다. 어떻게 시작된 한해였던가. 지금도 잊을수 없다. 새해의 첫아침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희복과 더 큰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그 영상을,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와 높은 연단에서 울려 퍼지던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운 그 음성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넘고넘으신 평결은 그 얼마나 헤쳐가신 바다같은 그 열마였던가. 서해의 최대열점지역인 섬초소들과 적들과의 거리가 불과 수백m밖에 안되는 최전연 오성산의 까칠봉초소...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고걸으신 헌신의 장정은 또 얼마였던가. 마시령의 험준한 산발에도,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가는 문수물놀이장이며 류경주강병원에도, 미림솔마구락부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은하과학자거리에도... 정령 올해의 하루하루는 말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진 날이었고 시간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시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원수님의 발걸음에 보폭을 따라세우며 폭풍처럼 달려온 우리 군대와 인민. 시대의 이 거대한 흐름속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시령속도》가 창조되고 온 나라에 대비약, 대학신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놓처럼 일떠선것이 아니던가. 참으로 올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으로 빛나는 송고한 사랑의 한해, 평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조국수호와 부강번영의 길을 힘차게 달려온 천만근민의 위훈의 자욱자욱으로 날과 달을 엮어온 총정의 한해이다. 하기에 올해의 날과 날이 우리에게는 단순히 수자라는 의미로 여겨지지 않는다. 너무나 위대하고 뜨거웠기에 실려있는 날들이어서 쉽게 번질수 없는 이해의 마지막달력이다. 그렇다. 이 땅에 새겨진 날과 달들은 평도자는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평도자를 그리며 받들어 온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화폭, 선군시대의 위대한 기념비가 아니겠는가. 해가 바뀌는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를 뒤에 두고 새해를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의 승리를 가슴에 안고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신심도 드높이 우리는 새해로 간다. 본사기자 장철범

단상

행운의 꿈

2014년은 어떤 해일까. 새해를 앞둔 오늘 전세계인민들이 이런 물음을 안고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있을것이다. 그리고 두손 모아 간절히 빌고있것이다. 새해에 자기들에게 불행과 고통이 아니라 건강과 평온, 행운이 차체지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할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에게는 막연한 기대나 또 《어떤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있었는가.》 하는 착잡한 심정같은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조선로동당이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굳건히 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이 있으면 인민복도 생기는 법이다.》

이 가져다주는 행운을 바라지 않는다. 세상사람들이 행운이라 부르며 그토록 소원해마지 않는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고있고, 원수님 또 한해 걸고걸으신 그 헌신의 길에 세월의 눈비 모두 거두어다오. 이것이 새해를 앞둔 이 시각 우리 인민이 가장 뜨겁게 간직하는 넋일, 가장 절절히 소원하는 행운에 대한 꿈이다. 본사기자 김 건

전달된 다음 우리 민족의 철학발전과 우수한 전통문화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데 기여한 김은중, 조흥호에게 철학박사학위, 동북아시아경제협력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한 황금해에게 경제학박사학위 각각 수여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두리에 굳게 봉처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일심단결의 대오가 흐른다.

본사기자 김 종훈 찍음

온 나라에 울려 퍼진 어머니의 목소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조직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피우고 이끌어 주어야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초소에서 사투를 벌이는 책임이 있다.》 올해에도 이 땅에는 천만자식 품에 안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뜨겁게 울려 퍼졌다. 온 한해 위계길을 걸으며 우리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위대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친근한 음성이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회장에 올러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금 새기어 보자.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에 어머니 그 목소리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리 온 나라에 울려리라는 인상깊은 구절이 있는데 어머니당의 사랑과

민음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 사람들은 바로 세포비서들이었다. ... 새해의 첫 기슭에서 울려 퍼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목소리는 온 한해 내 나라를 따듯이 덤벼주었다. 자연의 겨울은 있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엔 따뜻한 봄날만 있었고 난관과 시련은 있었어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는 정이 흘러넘쳤다. 전당의 당일군들과 당세포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과 고매한 품오를 심장에 새겨안고 사랑과 믿음의 주로를 힘차게 달려왔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에 언제나 자신을 비추어보자. 자식을 위하여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인민을 위해 진정을 바치자!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인민적품오를 거울로, 그의 높은 뜻을 좌우명으로 삼고 펼쳐나선 모든 당일군들과 당세포비서들의 의지였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지하여!》라는 구호에 각급 당조직들의 당사업이 정과 정으로 이어지는 당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어머니나 보인다. 남흥, 무산에 가면 자식을 위한 일에 만족을 모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종업원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피주는 당책임비서를 볼수 있고 연탄군과 허천군, 동림군에 가면 근대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한몸을 깡그리 불태우는 군당책임비서를 볼수 있다. 어디서나 만날수 있다. 회창군의 자그마한 산골리에 가면 한 농장원자녀의 전담문제를 두고 밤길을 수없이 걸은 리당비서를 만날수 있고 벽성군의 농장마을에 가면 누구나 외면하던 말생들을 사랑과 정으로 이끌어 현신자로, 조선로동당원로 키워준 당일군을 만날수 있다. 황해북도금강관리국과 2.8 직동청년련방, 선천평안과 문천탄광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의 당일군들과 당세포비서들이 바

로 그렇게 살며 투쟁해왔다. 수도와 멀리 떨어진 외진 산골마을에도, 머나먼 바다가마음에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정답게 울리었다. 어머니의 목소리, 이것이 바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피주는 우리 당의 목소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일군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그렇듯 값없이 평가해주시진 않나리. 경애하는 원수님으로부터 《어머니손길로, 어머니마음으로 고급성, 차오심동무들을 뜻깊이 풀어준 조급담비서들! 정말 고맙습니다. 김정은

나라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뜨겁게 울려 퍼졌다. 그렇다. 어머니의 목소리,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천만근민을 뜻과 정으로 더욱 굳건히 이어주는 혼연일체의 메아리, 세상에 돌도 없는 일심단결의 당,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주제가 아니겠는가. 인민사랑의 최고 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당의 목소리, 사랑과 믿음에 젖어있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끝없이 울려 퍼질것이다. ... 어머니 그 목소리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리 온 나라에 울리네 품에도 못 잊어 영원히 못 잊어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아 따르리 본사기자 김 향란

